

# 흔들리는

# 石油帝國의 内幕(上)

## I. 프롤로그

지난 73년의 第1次 石油危機가 발생한 지도 10년이 되었다. 第1次 石油危機로부터 79년의 第2次 石油危機까지 세계는 石油不足의 恐怖觀念에 휘말려 原油 가격은 계속 상승해 왔다. 그러나 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石油은 오히려 과잉현상을 빚어 가격은 하락세로 反轉했다.

현재 OPEC(石油輸出國機構)는 가격붕괴를 막기 위해 生産能力(하루 3천2백만배럴)의 절반 이하로 産油量을 감축했고, 메이저가 주도하는 非OPEC原油은 OPEC를 상회하는 生産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금년 2월 이후의 原油價格인하의 발단은 또다시 價格主導權을 장악한 메이저(國際石油資本)에서 연유되고 있다. 처음으로 가격인하경쟁에 불을 붙인 것은 소련原油이며, 이어 이집트, 美國原油의 가격인하후 劇적인 北海原油(포티즈)의 가격인하(배럴당 3.5달러), 나이지리아原油(보니 라이트)의 5.5달러, 사우디原油(아라비안 라이트)의 5달러의 가격인하가 실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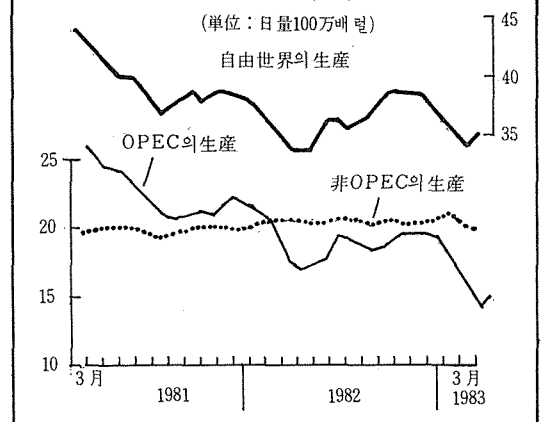
### 油價下落 촉발시킨 소련

소련의 原油價格인하는 不況에 허덕이는 西歐諸國에 값싼 원유를 수출, 外貨를 조금이라도 더 획득하려는 것이었으며, 美英메이저는 現物原油를 값싸게 구입, 이집트, 멕시코, 美國內의 基準原油가격을 인하시켰고 北海

原油와 OPEC原油에 대한 가격인하압력을 강화했다.

이란革命후의 第2次 石油危機 직후까지 원유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야마니石油相이었으나, 이제는 사우디가 거꾸로 메이저로부터 가격인하압력을 받는 입장이 되었다. 값싼 사우디原油의 대부분을 독점적으로 취급해 온 엑슨, 소칼, 텍사코, 모빌의 아람코 母會社와 같은 美國系 메이저 4社들은 사우디原油의 거래를 감축하고 가격인하압력을 가중시켜 왔다.

(그림-1) 自由世界の 石油生産 · OPEC生産은 非OPEC生産을 下廻하고 있다.



70년대에는 하루 1천만배럴을 생산해 온 사우디의 현재의 生産水準은 3백50만~4백만배럴로 떨어졌는데 야마니石油相은 지난 1월 『사우디는 더 이상 減産을 감내할 수 없어 가격인하는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야마니 石油相의 이 발언을 계기로 세계원유는 가격인하세로 물리게 되었다.

이는 73년 이후의「OPEC時代」의 終焉을 고하고, 「메이저復权的 時代」가 다시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인 지도 모른다.

그 동안 非OPEC原油, 특히 알라스카油田과 北海, 멕시코油田등을 육성해 온 것은 메이저였다. 지난 73년의 세계原油生産量은 하루 5천 5백 4만 배럴로 이중 OPEC原油는 3천 88만 배럴로 전체의 56%였고, 非OPEC原油(소련 포함)는 2천 4백 16만 배럴이었다. 그런데 지난 82년에는 전세계原油생산량이 5천 2백 72만 배럴인데 대해 OPEC는 1천 9백 49만 배럴, 非OPEC는 3천 3백 22만 배럴을 생산했다. (82년은 1~10월 평균)

### 메이저의 復权 노력

自由世界の 경우, 原油生産량은 금년 1~3월 평균으로 하루 3천 8백 56만 배럴 (73년의 4천 9백 만 배럴에 비해 28% 감소)로 그 구성은 OPEC原油 1천 5백 22만 배럴, 非OPEC原油 2천 20만 배럴이며 나머지 3백 15만 배럴은 NGL이다. 自由世界內的 非OPEC原油가 OPEC原油生産량을 상회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82년 2월 이후부터인데 北海原油(하루 생산량 2백 80만 배럴), 멕시코原油(하루 2백 90만 배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引 下 動 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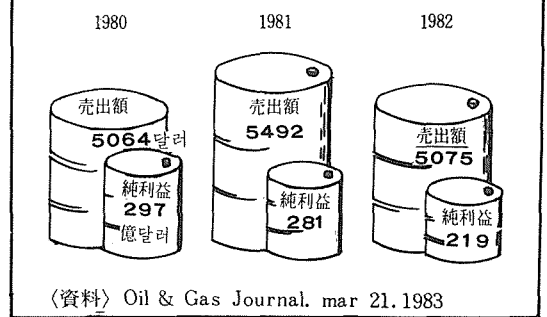
83년 2월 1일	소련 우랄엑스포트	31.50→29.35 \$/B
2월 3일	이집트 수에즈브렌드	31.00→29.00 "
2월 14일	미국 텍사스인티미디에이트	31.00→30.00 "
2월 18일	영국 北海포티즈동	33.50→30.50 "
2월 19일	나이지리아 보니라이트	35.50→30.00 "
3월 9일	(인도네시아, 原油價格引下를 2/23로 遡及한다고 発表)	
3월 8일	소련 우랄엑스포트	29.35→27.50 "
2월 22일~23일	(灣岸協力會議과 이라크가 原油價格引下에 同意)	
3월 14일	사우디 아라비안라이트동	34.00→29.00 "
3월 30일	영국 포티즈동	30.50→30.00 "

메이저의 입장에서는 OPEC에 빼앗겼던 原油支配력을 非OPEC에서의 自社生産력을 높임으로써 계속 위축되어온 一貫石油会社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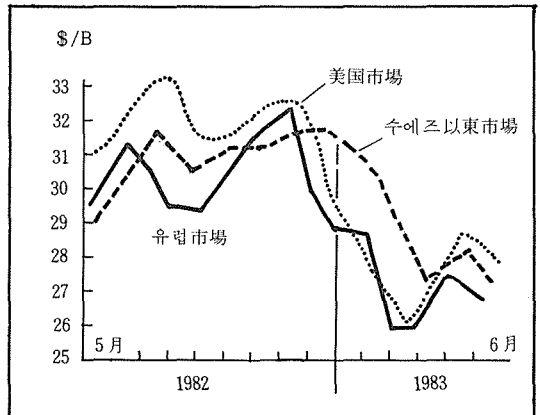
과거 原油수요가 계속 늘고 가격이 상승하던 石油危機時代는 메이저에게도 高利潤의 시대이었으나, 80년대에 자유세계의 原油수요가 하루 4천만 배럴을 넘을 것

로는 예상할 수 없다. 가빈 엑슨會長도 『지난 80, 81년과 같은 高收益時代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그림-2〉 美国石油資本26社の 売出額과 純利益



〈그림-3〉 現物原油價格推移



〈註〉 아라비안라이트 기준

수요와 收益이 떨어지자 메이저는 현물원유와 같은 값싼 원유의 거래를 늘려 가격인하압력을 가중시켜왔는데 그 결과 OPEC産油國의 무역수지는 81년의 1천 2백억 달러 赤字에서 83년에는 최소한 3백 50억 달러의 赤字로 反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멕시코, 베네수엘라, 나이지리아, 알제리, 인도네시아등 9개 産油國의 對外債務는 금년말까지 총 2천 3백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어서 이들 産油國들이 또 다시 덤핑할 경우 국제석유가격이 붕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石油減産으로 사우디金融帝國이 붕괴될 경우, 사우디의 방대한 海外資産은 美歐에서 流出되고, 사우디의 아랍諸國에 대한 지원이 축소 내지 중단되어 각산유국은 또 다시 석유덤핑경쟁에 돌입할 가능

성이 크다. 이미 이번 메이저主導의 原油價格引下로 사우디등 OPEC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와 美國 남부의 中小石油도 큰 타격을 받고 있다.

國際石油市場의 지배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메이저의 石油에 대한 헤게모니는 완전하지 않으며, 또 OPEC(특히 사우디), 소련도 아직 尙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수요가 감소하는 가운데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增産하려는 기운은 OPEC, 北海, 멕시코등에서 높아가고 있어 세계石油帝國의 세력균형은 流動, 변화하고 있다. 최근 「週刊 東洋經濟」를 통해 新舊石油帝國의 내막을 조명해 본다.

## II. 엑슨

메이저의 왕자이며, 세계최대의 多国籍企業인 엑슨은 올해로 창립 1백1주년을 맞아 2세기체에 들어섰다. 두차례의 石油危機 이후 엑슨은 로얄 더치 셸 등 다른 메이저와 함께 알라스카, 北海, 멕시코등에서 非OPEC原油를 개발, OPEC를 압도하는 石油生産者로서 국제석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회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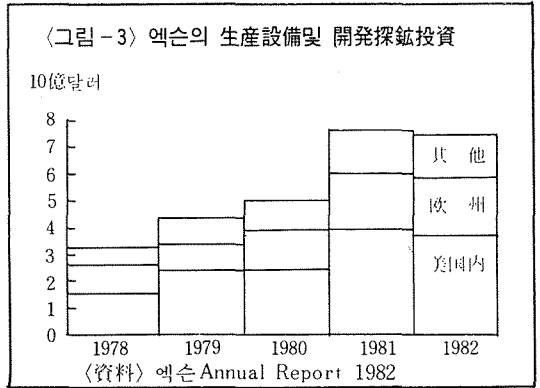
엑슨은 사우디 아라비아에 原油價格引下를 가져오게 한 막후세력으로서 앞으로 OPEC는 엑슨의 意向을 무시한 채 생산과 가격을 변동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엑슨은 현재 石油化學工業의 不況속에서 그 동안 계속해 온 성장의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엑슨의 石油産業은 이제 美國경제의 기관차는 아니다.

지난 80년 이후 세계의 석유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엑슨의 成長도 3년 계속하여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두차례의 石油危機속에서도 세계제일의 위용을 자랑해 온 엑슨은 성장의 정체기를 맞고 있다. 엑슨의 82년의 순이익은 42억달러로 물론 세계 제1위를 固守하고 있다. 그러나 55억달러의 史上최대의 이익을 올렸던 80년과 48억달러를 기록했던 81년에 비하면 3년 계속하여 이익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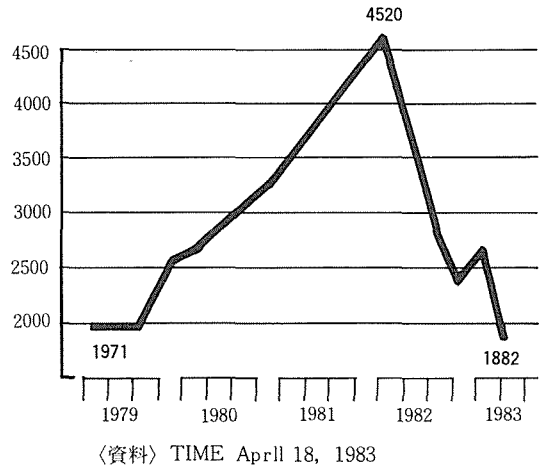
이익감소의 주요원인은 ① 값비싼 사우디原油를 아람코 母會社로서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데다가 ② 해외의 精製·판매부문의 매출액이 감소했고, ③ 過剩船腹에 따른 탱커부문의 赤字, ④ 内外의 探鉱코스트의 상승등의 요인 때문이다.

본래 엑슨을 비롯한 소칼, 텍사코, 모빌의 強點은 OPEC의 중심세력인 사우디原油를 독점적으로 생산·판매하는 아람코의 母會社라는 점이다. 사우디-아람코의

특별한 관계야말로 국제석유시장안정의 중추로서 사우디原油를 독점할 수 있는 美國系 메이저 4社의 우위성을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림-4) 美國內的 探鉱開發油井本數의 減少



## 고전하는 아람코母會社

그런데 사우디는 최대의 石油王國으로서 아람民族主義諸國을 지원하는 한편 自國의 경제건설을 추진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으며, 또 自國石油의 지배권을 국가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에 있어서도 엑슨등 美國系 메이저에 특별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

특히 값싼 사우디原油를 入手할 수 있는 아람코 4社는 지난 81년 11월 이후부터는 배럴당 34달러의 비싼 公示價格으로 거래할 수 밖에 없어 텍사코의 경우는 사우디原油의 거래에서 배럴당 5달러의 赤字를 냈다. 값싼 사우디原油를 독점적으로 확보해 온 아람코 어드반티 지

는 81년 가을부터는 아람코·디서드반티지로 逆轉된 것이다.

사우디原油의 거래는 엑슨보다 모빌(82년 43% 이익 감소), 소칼(同 42% 이익감소), 텍사코(同 45% 이익 감소)에 더 큰 타격을 주고 있다.

美国石油資本의 1982年經營実績

区 分	純 利 益		売 出 額	
	1982 100万달러	対1981 年増減 %	1982 100万달러	対1981 年増減 %
엑 스	4,185.0	-13.3	103,649.0	-9.8
오하이오·스탠다드	1,880.0	-3.6	13,500.0	-4.9
인디에너·스탠다드	1,826.0	-5.0	29,856.0	-5.9
어틀랜틱리치필드	1,676.1	+0.3	26,990.6	-4.3
美 国 셸	1,605.0	-5.6	20,214.0	-7.0
모 빌	1,380.0	-43.3	63,828.0	-6.9
소 칼	1,377.0	-42.1	35,900.0	-23.0
텍 사 코	1,281.0	-44.5	48,000.0	-19.1
결 프	900.0	-26.8	30,660.0	+0.7
코 노 코	848.0	+18.4	18,896.0	+10.1
테 네 코	819.0	+0.7	14,979.0	-0.6
유 니 온	804.0	+1.6	10,899.1	-3.5
계 티	691.6	-19.3	12,326.0	-7.0
필 립 스	645.9	-26.6	15,890.0	-2.5
선	537.0	-50.1	16,300.0	-0.6
수 피 어 리 어	223.4	-38.2	2,040.5	-0.8
카 마 기	209.8	-0.6	3,777.2	-1.3
켄 조 일	188.7	-14.8	2,268.5	-15.4
아 메 라 다 헤스	168.7	-20.6	8,390.0	-11.1
마 피	159.1	-2.4	2,698.8	+6.1
옥 시 덴 탈	155.6	-78.5	18,200.0	+23.8
다이아몬드·삼록	149.5	-35.1	3,177.4	-5.9
루이지애너랜드	76.3	-47.5	1,205.2	-5.7
아메리칸피트로피나	54.4	-26.6	2,253.7	-10.6
나 트 머 스	44.0	-81.1	1,655.8	+4.6
애 슈 런 드	-	-	-	-
합 計	21,885.1	-22.2	507,544.8	-7.6

〈資料〉 Oil & Gas Journal Mar21, 1983

모빌, 소칼, 텍사코와 결프의 82년도 이익은 美国内의 一貫石油会社인 스탠다드 오일(오하이오), 스탠다드 오일(인디에너), ARCO, 美国셸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現物原油의 구입 확대

엑슨을 비롯한 아람코 母会社인 美国系 메이저가 사우디原油거래를 줄이고, 現物市場에서 값싼 원유를 구입

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결국 이러한 움직임이 메이저에 의한 基準原油가격인하의 압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사우디-아람코의 石油관계에도 중대한 변화를 가져 왔다. 사우디는 아람코 母会社의 去來감소분을 국영석유회사 페트로민을 통해 셸, BP등으로 직접판매함으로써 대항하고 있다. 페트로민의 타헤르總裁에 의하면, 지난 4月末의 하루 產油量 4백만배럴 가운데 70만배럴을 국내소비로 돌리고, 1백50만~1백60만배럴을 직접판매했고, 美国系 메이저 4社가 거래한 것은 1백20만~1백30만배럴에 그쳤다.

엑슨등 美国系 메이저의 입장에서 볼 때 사우디와의 특별한 관계는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며, 사우디 역시 石油비즈니스의 사우디화를 추진, 美国 이외의 기업과 직접거래하고 있다.

엑슨등 美国系 메이저는 美国内(알라스카北極海, 캘리포니아남부대륙봉)와 北海, 멕시코, 캐나다, 濠洲에 안정적인 供給源을 찾아 여기에서 탐광의 개발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엑슨이 지난 봄에 알라스카에서 64개 鉆区中 45개 鉆区를 낙찰한 것은 그 예이다. 소칼은 지난해 南캘리포니아에서 大油田을 발견했고, 모빌, 결프, 텍사코도 美本土에서의 석유개발에 주력하여 가능한 한 매장량이 많은 中小型의 석유자본을 買入하고 있다.

셸도 또한 北海에서 엑슨과 공동으로 석유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英國본토에서는 석유화학플랜트건설을 진행하는 한편, 美国内에서는 美国셸이 캘리포니아의 베르리츠石油를 매입하고, 루이지애너대륙봉에서도 석유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BP도 새로 알라스카에서 鉆区를 취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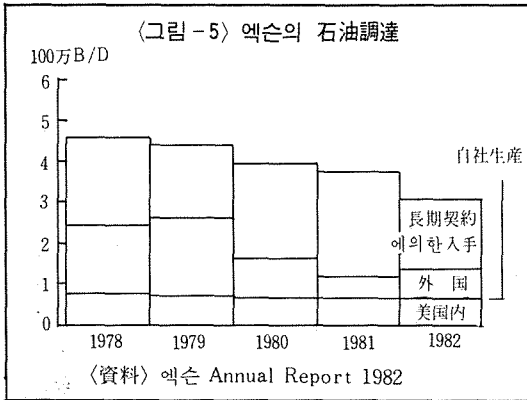
原油導入先의 다변화

엑슨은 美행정부와 체이스은행, 시티銀行을 움직여 멕시코의 금융위기를 구제하고, 또한 美-사우디의 石油樞軸에 이어 제2의 대비축으로서 美-멕시코의 석유를 둘러싼 「特別한 關係」를 이룩했다. 그 결과 지난해 美国의 輸入原油는 사우디原油를 제외하면, 멕시코原油가 首位를 차지하고 있다. 즉 美-사우디關係의 流動에 대비하여 非OPEC原油에 全力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엑슨으로서는 하루 1천2백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가진 소련에 이어 세계 제2위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사우디와의 특별한 관계를 간단히 끊어버릴 수도 없는 형편이다. 우호적인 사우디가 減産에 견뎌내고 OPEC

내에서 지도적 세력으로 남아 原油 가격붕괴를 막아주는 것은 엑슨의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美歐메이저에게도 중대한 利害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가빈 엑슨會長은 『OPEC는 아직도 가격결정권을 완전히 잃지 않고 있다. 만약 상실한다면 원유가격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고 말하고 있다. 나이지리아나 사우디 原油, 北海原油에 대해 기준가격인하압력을 가하는 것은 메이저이지만, 이들 메이저측에서 볼 때에도 北海나 美國의 新油田코스트(배럴당 20달러)를 하회하는 가격 붕괴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中東에서는 生産코스트가 배럴당 2달러이기 때문에 20달러 이하로 가격이 떨어져도 이론상 가능하다.



또한 사우디는 石油化学分野에도 진출하고 있어 石油 수요의 伸張을 기대할 수 없는 80년대에 下流部門을 다시 重視하고 있는 메이저의 戰略과 競合關係를 보이고 있다. 原油 이상으로 가격변동이 심한 이분야에서 사우디가 값싼 自國의 원료를 기초로 값싼 제품을 생산한다는 것은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엑슨, 셸, 모빌이 사우디의 에틸렌, 폴리에틸렌計劃에 참가하여 기술협력으로부터 제품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협력을 통해 共存을 모색하고 있다.

### OPEC와의 새 關係摸索

엑슨은 또한 사우디에 대항하여 하루 3백만배럴 이상의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란과도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란은 시리아에 原油를 배럴당 25달러이하의 政治價格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OPEC의 生産할당에도 따르지 않고 있다. 反蘇化하는 최근의 이란을 美國측에 끌어 들여 메이저와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국제원유시장의 변화에 対応하여 非OPEC原油를 육성하고 힘이 약화된 OPEC와도 새로운 關係를 모색하고 있는 엑슨은 守勢에서 「석유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에의 対応」(가빈 엑슨會長)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80년 9월에 엑슨會長은 『엑슨의 장래는 非石油에너지에 달려 있으며, 앞으로 총매출액의 3분의 1을 차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콜로라도州의 오일셀프 프로젝트(20억~50억달러)는 타당성판단의 미스로 82년에 취소하고 말았다.

石炭부문에서는 계속 伸張勢를 보이고 있는데 석유부문의 사업이 한계에 다다르자 엑슨경영진은 高度기술분야에 진출을 꾀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산업분야의 子會社는 아직 육성중이기 때문에 이익은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 III. 사우디 아라비아

原油價格하락과 대폭적인 減産에 따른 石油收入의 감소는 사우디 아라비아의 경제와 政治人들을 根底로부터 흔들기 시작했다.

하루 1천 2백만배럴의 생산능력을 가진 사우디의 현재 產油量은 4백만배럴 이하로 떨어져 石油收入은 81년의 1천 1백55달러에서 올해는 4백29억달러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石油收入의 감소는 그 配分을 둘러싸고 王族内部의 利權투쟁의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재정곤란이 심화될 경우, 王族内部의 利權투쟁이 内紛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사우디의 經常收支흑자는 81년의 4백50억달러에서 82년에는 15억달러로 急減했고, 또 올해는 2백억달러 이상의 대폭적인 赤字가 예상되고 있다.

국가재정에 있어서도 올해는 대폭적인 歳入감소에도 불구하고, 세출증가는 불가피해 지난 73년 이래 처음으로 赤字算이 되어 약 1백억달러의 赤字는 對外資産의 회수 등의 방법으로 補填해야 할 형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정치에도 파급되고 있다. 지난 74년 이후 SAMA(사우디 아라비아 中央銀行) 총재를 맡아온 크라이시의 사임이나 지난 4월의 야마니 情報相의 사임을 비롯해 王族間의 対立說과 반란미수사건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우디 정부의 第2人者로 알려진 國경수비대장인 압둘라皇太子가 최근 기자회견을 갖

고 반란설과 政情不安說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일부 서방측 언론이 皇太子 휘하의 국경수비대에 의한 반란미수사건을 보도한데 대해 황태자의 관련을 부인하기 위해 취해진 것으로 보인다.

### 확대되는 經濟波紋

그러나 이와 같은 루머는 이미 事實無根으로 밝혀졌으나, 최근의 政情不安에 대응하여 사우디정부는 3月末까지 1천 4백여명의 不法거주자를 감금하고 국민이 소지한 총기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布告를 발표하는 등 국내치안을 강화하고 있다. 原油取入의 감소로 비롯된 사우디의 경제적 곤란의 파문은 국내정치면에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사우디의 石油體制가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사우디 국내의 정치변동에서 파생되고 있으며, 서방세계의 石油事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베이루트의 「아람·프레스·서비스」誌(3月 30日 / 4月 6日号)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사우디의 石油意思決定메커니즘에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의미는 아람코의 旧所有者인 美国 메이저 4社의 입장을 바꿔게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약간 센세이셔널한 表現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사우디의 石油판매는 국영석유회사인 페트로민이 전담하도록 지난 3월에 결정되었으며,

둘째는 이 결정이 압둘라皇太子의 사회로 열린 最高石油會議(SPC) 및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것이다.

이 보도의 사실여부는 확인할 수 없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중대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의 石油수급균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페트로민이 앞으로 石油판매를 전담한다는 決定이 어찌서 그처럼 큰 의미를 갖고 있을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背景인 사우디의 복잡한 石油體制와 메이저와의 특수한 관계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一般論으로 말하면, 석유국유화 이후 產油國에 있어서 국영석유회사가 독점적으로 石油를 생산·판매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OPEC 產油國들은 이미 7,8년전부터 실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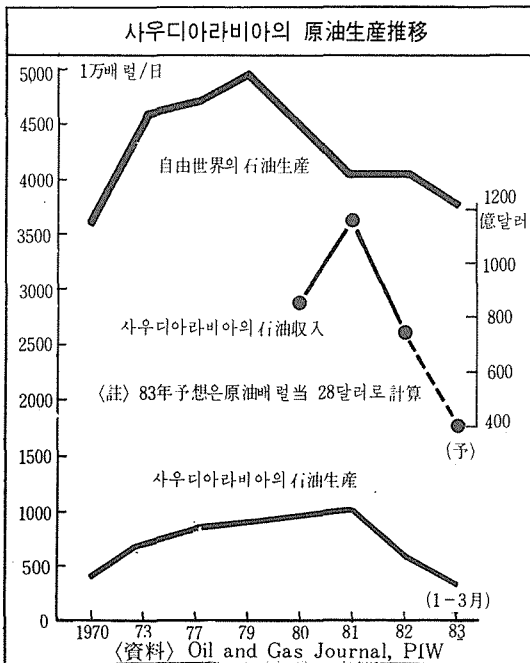
### 아람코와 페트로민

그러나 사우디에는 다른 產油國과 다른 사정이 있으며, 또 메이저와의 관계가 얽혀 더욱 복잡하다. 우선 사우디에는 페트로민과 아람코의 2개의 國營石油會社가 있다.

아람코는 과거 사우디의 石油生産을 장악했던 美国系 메이저 4社(엑슨, 소칼, 텍사코, 모빌)의 共同出資會社인데 현재는 사우디내의 同社의 석유생산의 全資産이 국유화되어 사실상 사우디 國營會社로 존속하고 있다. 아람코는 현재도 原油生産을 도급 주어 原油의 상당부분(75%)을 美国系 4社에 팔고 있다.

나머지 25%를 취급하고 있는 페트로민은 국내소비되는 石油의 정제·판매를 주로 하면서 수출도 하고 있다. 페트로민의 石油판매는 美国系 4社 이외의 去來先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정부와의 G-G베이스去來, 中小정유회사와의 D-D베이스去來, 최근에는 셸, BP, ENI 등과도 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는 아람코가 主役이고 페트로민은 보조역할에 그쳤었다.

사우디는 아람코를 메이저로부터 인제받은 후에도 메이저와의 關係를 유지해 왔다. 즉, 사우디는 국유화 후에도 아람코를 통해 全生産량의 75%를 메이저에 안정적으로 공급해 왔다. 이는 다른 中東產油國들이 국유화 이후 旧所有者와 체결했던 메이저와의 長期供給計劃을



수년후에 파기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우디는 OPEC에서 메이저와 강한 유대관계를 유지해 온 유일한 국가로서 사우디와 미국과의 특수한 관계를 지탱해준 기구가 아람코인 것이다.

### 정식조인 못한 国有化協定

사우디国内에서 아람코의 地位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케트로민과의 關係와 兩社의 역할 분담등에도 미해결의 문제가 있다. 그 결과 사우디의 国有化協定の 정식조인이 늦어지고 있다.

사우디政府가 아람코를 실질적으로 全面国有化한 것은 지난 78년. 그 때 국유화협정속의 재무협정은 71년 1월로 소급 발효하고 그 이후 메이저는 기술·경영·서비스회사로서 활동하고 아람코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어 80년에는 国有化資産에 대한 메이저에의 지불도 모두 끝내 국유화는 사실상 완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国有化協定에 관해 메이저와 사우디政府가 정식으로 조인했다는 보도는 없다. 그 원인은 사우디의 国内事情에 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즉, 사우디의 石油体制, 특히 아람코의 地位를 둘러싼 의견대립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王族内部의 대립

현재 사우디의 政權수뇌부는 2개의 상이한 정치적 조류를 보이고 있는데, 하나는 파드國王이 이끄는 進歩派 또는 親美派이며, 또 하나는 압둘라皇太子를 정점으로 하는 보수파 또는 民族派이다. 이 王族内部의 대립은 최근 긴장을 더해가고 있으며, 특히 압둘라皇太子의 원만치 못한 尙美자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케트로민의 機能擴大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民族派의 압둘라황태자의 主導로 이 결정이 最高石油會議에서 달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회의는 보통 國王을 議長으로 하여 열리는데 파드國王은 이 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람코의 弱体化를 촉진할 이 결정은 親美派인 國王의 불참속에 이루어져 民族派인 황태자측의 現親美정권에 대한 반격이 일단 성공했음을 의미한다.

中東情報誌 「아랍·프레스·서비스」는 『최근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압둘라皇太子의 발언이 사우디國營報道機關인 라디오, TV에서 크게 취급되고 있다는 점

이다. 현재의 重大事는 ①파드國王이 현재 石油政策결정에 참여하고 있는지의 여부, ②압둘라皇太子가 석유 무대에의 일시적인 등장에 그칠 것인가의 여부등의 2가지로 집약된다』(3.30/4.6号).

사우디의 주요石油化学 프로젝트

프로젝트	外國參加企業	建設場所	開始年
사우디·케트로케미칼 (에틸렌플랜트)	빙·오일	주베일	1985
사우디·얀부·케트로케미칼 (에틸렌, 폴리에틸렌·에틸렌글리콜)	보빌	얀부	1985
주베일·케트로케미칼	엑슨	주베일	1985
사우디·메타놀	일본소시얼	주베일	1983
내셔널·메타놀	세라니즈텍사코이스턴	주베일	1985
이스턴·케트로케미칼 (폴리에틸렌, 에틸렌·글리콜)	三菱그룹	주베일	1985

### 아람코事業의 축소

지난 3月の 最高石油會議의 결정을 뒷받침이라도 하듯 아람코 地位의 변화를 말해 주는 몇가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그중의 하나는 아람코事業의 축소이다. 아람코 스스로 최근 『점진적으로 적정한 규모로 人力을 축소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람코는 人力축소의 이유로 ①세계적인 석유수요의 감퇴로 잉여인력이 발생했고, ②주요건설계획이 완료되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아람코의 人員은 지난 73년 당시 1만3천명에서 82년 말에는 6만1천명으로 약 5배나 증가했다. 인원축소의 규모나 國籍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一說에는 15% 내외가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아울러 아람코의 開發計劃도 전면적인 재검토를 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람코에는 不利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一說에 의하면, 석유탐사사업을 아람코의 기업활동으로부터 빼어내고, 아람코의 활동을 中規模정도의 유전개발에 한정시킨다는 것이다.

石油收入이 감소되는 추세속에서 사우디의 각종 경제 개발계획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람코의 경우는 계획재검토의 단계를 넘어 사업축소가 진행되고 있어 사우디의 石油生産體制에 있어서 아람코의 지위는 크게 후퇴할 것이 틀림없다.

이와 같은 아람코의 地位低下는 최근의 收入감소에서 연유되고 있다. 原油代를 유일한 收入源으로 하는 아람코는 거액의 자금을 소득세로 國庫에 납입하고 자체적으로 탐사개발비를 조달해 왔다.

### 아람코의 原油販賣減少

대개 아람코의 原油販賣先은 美國系 메이저 4社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4社의 原油거래감소는 아람코의 收入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3月 사우디의 原油생산량은 하루 3백70만 배럴인데 이중 메이저의 去來分은 2백만 배럴에 그치고 있다.

사우디의 石油減産의 배이스 이상으로 메이저의 去來量감소는 현저하다. 사우디의 全体 原油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메이저 去來分의 비율은 과거의 75%에서 최근에는 54%까지 떨어졌다. 메이저去來減少分은 페트로민에 들어가 사우디原油에서 차지하는 兩社의 세어는 비슷한 수준이 되었다. 최근에는 페트로민의 기능확대로 同社의 세어는 50%를 넘어섰다.

지난 5월 1일, 페트로민總裁는 최근의 사우디 原油생산량이 하루 4백만배럴을 밀돌고 있으며, 이중 70만배럴은 國內消費, 1백50만~1백60만배럴은 페트로민에 수출함으로써 메이저의 거래분은 사우디 전체생산량의 절반이하수준이라고 밝혔다. 또 사우디 石油化學計劃에서도 엑슨, 모빌이 참가하여 下流部門에서의 기술, 생산 및 제품의 판매협력관계도 새로 발전시킬 가능성은 희박하다.

사우디의 減産은 原油수급조정에 기여하고 있으며, 시장안정에 공헌하고 있다. 사우디는 메이저의 리드로

스윙 프로듀서(生産調整者)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石油資源의 保存정책은 사우디의 기본 방침이다. 그러나 최근의 原油생산량수준(하루 3백70만 배럴)은 당면한 국가재정을 지탱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다. 대폭적인 赤字가 예상되고 있는 올해 예산도 하루 4백80만배럴의 생산을 전제로 편성한 것이다.

### 아람코에 대한 비판 고조

메이저의 去來감소로 아람코의 取扱量이 줄어들고, 이에 따라 사우디政府의 主要 收入源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親美派와 民族派의 대립속에서 아람코는 民族派로부터 비판의 표적이 되고 있다. 아람코의 존재이유에 대한 비판이 고개를 들고 페트로민 強化論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페트로민 強化論=메이저 依存으로부터의 탈피라는 캐치프레이즈는 政治슬러건으로서 國內에서 어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을 가진 페트로민機能擴大의 결정이 실행에 옮겨질 경우, 사우디 石油体制의 주역은 아람코에서 페트로민으로 交替되고, 결국 사우디와 美國간의 오랜 특별한 관계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石油收入의 감소에 따른 경제곤란속에서 사우디王政은 그 존립기반을 지탱해온 美國 메이저와의 친밀한 관계와 그 支柱로서의 아람코를 둘러싸고 지금 심각한 시련에 직면해 있으며, 그 動向이 주목되고 있다. <계속>

近刊案内

國內 唯一의 石油産業 海外弘報誌

The Petroleum Industry in Korea 1983

大韓石油協會 · 弘報室